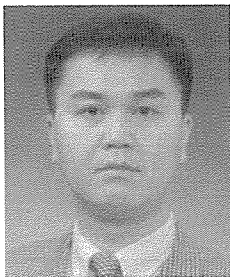


## 동아대 지구환경공학부

동아대의 지구환경공학부는 환경공학전공과 자원공학전공으로 나누어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환경공학전공은 대기, 수질, 폐기물관리 및 재활용, 소음 등 강좌를 개설해 운영하고 있으며 자원공학전공은 지구의 자원과 환경·건설분야 등 다양한 교육과정을 설치하고 있다. 졸업 후는 환경관련 공무원과 연구원, 그리고 관련 산업체 등 진로도 다양하다.



成樂昌

(동아대 지구환경공학부 환경공학과 교수)

동아대 지구환경공학부는 풍요로운 인간생활 영위에 기본이 되는 건설 및 인간과 환경의 조화를 위한 환경기술 그리고 국가경제 및 산업발달의 원동력인 자원과 에너지의 원활한 공급문제, 첨단산업 발전을 위한 고부가가치의 자원소재산업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그 목적으로 두고 있다.

### 환경·자원공학 등 전공 분류

학부는 환경공학전공과 자원공학전공

으로 세분되어 있으며, 보다 심도있는 교육과 연구를 위해 끊임없는 교재 및 교육방법을 연구·개선해 왔다. 아울러 국내 유수의 기업과 연계하여 보다 실용적인 학문의 습득을 용이하게 함은 물론 그에 필요한 제반 시설을 확충하여 보다 수준높은 교육여건을 갖추고 있다.

환경공학전공은 대기, 수질 및 상하수도, 폐기물관리 및 재활용 그리고 소음 및 진동분야로 크게 나누어 이에 대한 전문지식을 습득하고 있다. 대기분



▲ XRF 분석정경

야에서는 대기관리, 하폐수처리공학, 상하수도공학, 폐기물관리 및 재활용분야에는 고품폐기물처리, 액상폐기물처리, 소음 및 진동분야에는 소음 및 진동 등의 강좌를 개설하고 있고, 각 분야별로 설계·제도 및 실험·실습관련 강좌를 개설하여 학문을 유기적으로 습득할 수 있게 교육과정을 개설 운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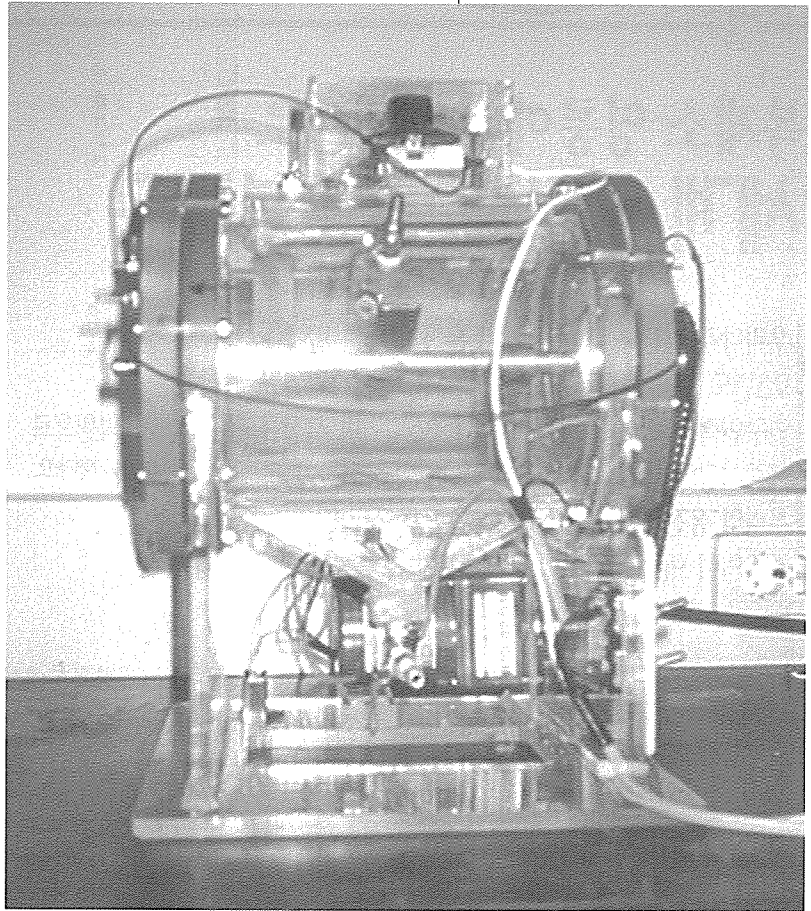
자원공학전공은 지구 자원과 관련하여 일반지질학, 광물학, 채석학, 탐사공학, 지하학탐사, 원격탐사, 지하수공학, 지하계측공학, 소재공학, 자원처리공학, 분체정제공학, 자원경제, 자원시스템공학 등의 강좌를 두고 있으며, 건설분야에서 발파공학, 암석역학, 화약 및 법규, 굴착공학, 발파진동학, 지질공학, 터널계측공학 등의 강좌가 개설되어 있고, 환경분야에서는 폐기물처리공학, 자원환경공학, 재활용공학 등의 교육과정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지구환경공학부의 졸업 후 진로는 매우 광범위하고 다양하다고 할 수 있다.

### 공무원·연구원 등 진로 다양

먼저 환경공학전공의 졸업자는 관련 기사자격증(대기, 수질, 폐기물, 소음 진동 등)은 물론 학창시절에 습득한 폭넓고 체계적인 환경오염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환경관련 국가공무원 및 국·공립 연구기관의 연구원, 대기환경보전 및 오염방지산업, 수질환경보전 및 오염방지산업, 상·하수도 및 토목관련 산업, 폐기물처리 및 장치산업, 화공산업 및 각종 환경오염물질 유발 산업체의 전문기술인력으로 진출할 수 있으며, 환경관련 벤처기업의 창업 등 전문 기술 경영자로서 활동할 수 있다.

자원공학전공의 졸업자는 토목, 화약, 응용지질, 산업안전, 폐기물, 환경



▲ 퇴비화 Pilot 장치

등의 기사자격증을 토대로 건설·토목, 화약, 응용지질, 자원재활용분야 및 기타 전문연구소 등에 진출하여 여러 산업체에서 매우 높은 신뢰 속에 우수한 능력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다.

향후 펼쳐지게 될 새로운 밀레니엄(millennium)의 문턱에 서 있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은 실로 막중하다고 할 수 있다. 중장기적으로 볼 때 모든 산업들이 우리가 연구하고 있는 부분들, 특히 환경오염과 대체자원·에너지 개발이 선행되어야 발전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실로 우리의 어깨가 무겁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이런 이유에서 우리는 기존의 연구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다른 학문과의 보다 폭 넓은 교류와 연구를 통하여 발전해 나갈 계획이다. ㉟